금주의 법구-〈아함경〉
맹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악한 벗을 두려워하라.
악한 벗은 마음을 파멸시킨다.

#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0년 단기 4349년(음력 10월 3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20호 2016년 11월 2일 수요일

# 호스피스교육 포교원 인증 전문가 양성 새 전기 기대

2017년 8월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이 불교계 전문인력 자격증 제도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병원전법단 연수 외에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도 종단 인증을 받게 될 예정이어서 전문인력 양성의 새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최근 병원전법단 ·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와의 3자 논의를 통해 불교호스피스 전문가 자격을 제도화하고, 각 단체 수료자에게 자격증을 배부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는 연명의료법 영적돌봄 분야서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체계가 없다는 종교계 문제제기로부터 마련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종교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선 먼저 불교 내부 전문교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출가자 교육 선택 폭 '확대'

실제 병원전법단과 불교호스피스협회는 각 활동영역이 교집합을 이루고 있어 꽤 오랜 기간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출가자의 임상지도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병원전법단 교육은 조계종 교육원 인증을 받은 반면, 출 · 재가와 무관하게 호스피스전문가를 길러내는 불교호스피스협회 교육은 종단 차원의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양 단체 교육을 포교원이 인증하고 전문자격증을 배부하면 출가자들의 교육 선택의 폭이 넓어짐과 동시에 일반사회의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건전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불교호스피스 질적 향상에도 긍정적이다.

포교원은 내년 법령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 한편, 양 단체 교육프로그램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호스피스協 · 병원전법단 논의**
**수료자에 자격증 배부 계획**
**내년 법령제정 목표로 추진**
**연명의료 불교대표성 확립도**

포교국장 성진 스님은 "단체 통합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두 단체 성격에 차이가 있고, 각자 충분한 교육체계를 갖춘 상태다.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불교호스피스협회장 능행 스님은 "자격증이 현재 활동하는 돌봄가들에게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소속감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원전법단 사무국장 지인 스님은 "불교호스피스협회와 병원전법단이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로 "교계 호스피스 제반이 한층 두터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영적돌봄 종교역할 기대

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불교계 과제로 연명의료법 영적돌봄에 대한 성직자 교육 필요성을 세간으로 확대하는 일을 꼽았다. 법률 시행까지 길지 않은 시간이 남은 만큼 종교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불교계가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

영적돌봄은 환자에 대한 전인(全人)적 접근이 주 목적이어서 의료진 외에 사회복지사 · 성직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지만 성직자 교육은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 역시 종교영역에 쉽사리 손댈 수 없어 이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그나마 정부의 체계적인 법률안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지난해 출범한 호스피스 · 완화의료국민본부(이하 국민본부)가 종교계 입장을 취합하고 있지만 교단 내 합의 도출이 우선과제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본부를 이끌고 있는 서이종 서울대 교수는 "최근까지 가톨릭을 제외하고 불교와 개신교가 교육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해 보건복지부에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웠다"며 "불교계에서 조계종이 대표성을 갖고 문제에 접근한다면 한결 풀어내기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성진 스님은 "불교계의 단합된 모습을 바탕으로 두 호스피스 전문단체와 의견을 조율해 성직자들을 위한 교육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호섭 기자




**"이 땅의 국민이 얼마나 더 죽어야하나"** 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부검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10월 24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부검반대 및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실시했다. 행렬은 백남기 농민 추모의 뜻을 담은 백색등을 선두로 조계사 일주문을 나서 종로경찰서, 원당동로터리, 서울대병원까지 이어졌다. 이날 함께한 사회노동위원 스님 5명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명은 '부검반대' '특검도입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우리가 백남기다' 등의 문구 피켓을 들고 머리와 두 팔, 두 다리를 땅에 닿게 하는 오체투지를 행했다. 글 · 사진= 박아름 기자

# "조계종 수계, 통과의례 돼서는 안된다"

**덕문 스님, 중승대 대학원 국제학술대회서 주장 '눈길'**

**정화 이후 '선교육 후득도' 制 〈사분율〉 공부 기회 축소해**
**청정 승가위해 계율 공부해야**



정화 이후 정착된 '선교육 후득도' 형식의 승가 교육제도가 계율 공부를 약화시키고, 수계를 통과의례로 여기는 경향을 만들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축율학승가대학장 덕문 스님〈사진〉은 10월 22일 중앙승가대 대학원이 주최한 '동아시아 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형성과 변천' 학술대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스님은 발표 논문 '현대 한국불교의 수계 의식의 제 문제'에서 현재 한국불교의 수계 전통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고찰했다.

덕문 스님은 현재 한국불교의 수계 전통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다. 문제는 수계 이후 지계 유지와 율장을 연구하는 스님들이 현저히 적다는 점이었다.

"수계를 통과의례 정도의 느낌으로 받는 종도들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덕문 스님은 정화 이후 승가교육으로 정착된 '선교육 후득도' 제도가 율장에 대한 배움을 축소했다고 봤다.

스님은 "율장에서 권장한 제도는 '선득도 후교육' 제도"라면서 "최소한의 교육을 마치면 사미(니)계를 받고, 구족계 조건이 되면 이를 수지했다. 이후 5년의 중요 과정이 지나면 여법한 수행자로서 승가공동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계율을 공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교육 후득도' 제도로 인해 종도들의 계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계율은 율사나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덕문 스님은 "조계종도 가운데 소의율장인 〈사분율〉을 공부하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10%미만이다. 나머지는 구족계 수계산림 기간 9일동안 이뤄진 계율 공부가 전부"라면서 "이런 상황 때문에 조계종단의 수계는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득도 후교육 제도'로 바꾸고 계율 공부를 필수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승가의 도덕성을 확보하고 국가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청정한 교단을 만들어 내기는 불가능하다"며 "청규 · 종헌종법 등의 방법을 통해 청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기초가 부실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HK연구교수가 '중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을, 박광연 동국대 HK연구교수가 '한국불교에 있어서 수계의식의 변천', 오카모토 잇페이(岡本 一平) 일본 게이오대 교수가 '보살계 수계의식의 특징-범망계를 중심으로'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제주불교 新 성지순례길 열린다

**11월 6일 '선정의 길' 개통**

**제주불교 '선정의 길' 코스**




2012년 지계의 길, 2013년 정진의 길, 2014년 보시의 길에 이어 새로운 제주성지순례길인 '선정의 길'이 개통된다.

제주불교신문과 제주관광공사는 11월 6일 약천사서 네 번째 성지순례길 '선정의 길'을 개통한다. 선정의 길은 '마음과 평화, 삶의 지혜를 사색할 수 있는 길'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다. 이 길은 서귀포 상효동 선덕사서 중문동에 이르는 총 42㎞ 코스다.

선정의 길은 △1코스(13㎞) 선덕사→법성사→관나암→신효동포제단→월라사→심우대→혜관정사 △2코스(9㎞) 혜관정사→제지기오름 절터→보문포구 옛 등대(도댓불)→소정방→정방사→무량정사→구룡사 △3코스(10㎞) 구룡사→이중섭 거리→서귀진성→황룡사→극락사→법장사→봉림사→정대교→연동연대→법환포구→법화사 △4코스(10㎞) 약천사→대포 본향당→대포 포구의 주춧돌→주상절리→제주국제컨벤션센터→중문 천제사로 구성돼 있다. 서귀포 중산간과 바닷가의 경관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최 측은 선정의 길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고자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된 안내표지판과 리플릿을 제작했다. 또한 성지순례길에서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윤호섭 기자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제5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의승군 추모 수륙무차대법회



2016.11.06(일) 9:00 - 15:00
남한산성 장경사 경내
12700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남한산성로 676
tel 031-743-6547~8, fax 031-744-9197

○ 1부 : 시련 · 대령의식(09:00)
○ 점심공양(12:00)
○ 2부 : 상단 · 중단의식
○ 3부 : 제5회 남한산성 의승군 수륙무차대법회(13:00)
○ 4부 : 하단의식 · 봉송/회향(14:00)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오며,
세계문화유산 남한산성 장경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제5회 남한산성 의승군 문화제' 의승군 추모 수륙무차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데 앞장서신 의승군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희생되신 의승병들의 넋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주무주의 고혼들을 천도하여 사회의 소통과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법회의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불사에 동참하시어 소중한 법연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 주지 진광 합장



주최 | 세계속의 경기도 광주시
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장경사
후원 | 대한불교조계종 경기문화재단 남한산성 문화관광사업단